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24호 【루계 제25002호】 주체104(2015)년 8월 12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우리의 미더운 녀자축구선수들처럼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하자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송전선공사 결속, 삼지연군에 대한 시험송전 성공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려는 당의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자랑찬 승리의 소식이 련이어 전해지고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송전선공사를 맡은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지난 8일 오전까지 1호발전소로부터 삼지연읍까지의 수십km에 달하는 구간에서 전선늘이기를 결속하였다. 기본구간에서의 전선늘이기가 결속단계에 들어선 8월초부터 1호발전소—2호발전소—3호발전소 련락송전선공사도 활발히 추진되여 11일 오전까지 이 구간에서의 철탑세우기, 전선늘이기도 성과적으로 끝났다. 송전선공사와 동시에 지난 7월말부터 1호발전소의 옥외변전소, 삼지연읍지구의 송변전설비들의 정비보수와 설비보강사업이 적극 추진되였다.

이런 만단의 준비밑에 이들은 지난 8일 오후부터 9일까지 기본구간의 송전선들에 대한 준공검사와 무부하가압시험을 끝낸데 이어 10일 저녁부터 삼지연군에 대한 시험송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조기조업한 백두산선군청년1호발전소의 전기가 백수십리의 전선을 타고 삼지연읍까지 무사히 송전됨으로써 1, 2호발전소건설이 끝남과 동시에 정상적인 송전을 진행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따라 변함없이 한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이 선군의 덕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게 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과 동시에 삼지연읍까지의 송전선공사를 힘있게 내밀데 대하여 여러차례 가르쳐주시고 공사를 다그칠수 있는 혁명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전력공업성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로 현장지휘부를 조직하고 단계별공사추진정형에 따라 력량을 기동적으로 보충, 보강하면서 전반적인 공사속도를 높여나갔다. 지난 7월 중순부터는 성의 책임일군이 직접 현지에 전투좌지를 정하고 철탑세우기, 전선늘이기, 송변전설비보수와 보강전투에서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시즉시 대책을 세워나갔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량강도송배전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내달려 기본구간에서의 송전선공사를 련이어 결속하였다.

함경남도송배전부와 각 시, 군의 송배전소에서 달려온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인민군대의 단숨에의 기상으로 철탑세우기와 전선늘이기를 제일먼저 끝내였다. 그들은 남달리 지형조건이 불리한 구간을 맡았지만 마음속에 언제나 백두산을 안고 지난 7월초부터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줄기찬 전투를 벌리였다. 그리하여 보름 남짓한 짧은 기간에 근 70기의 철탑을 세우고 2 600개이상에 달하는 각종 애자달기를 결속하였으며 8월초까지는 연 120km이상에 달하는 전선늘이기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끝내여 첫 승리의 개가를 올리였다.

함경북도송배전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전승절을 이틀앞두고 철탑세우기를 끝내였다. 그 기세로 전선늘이기전투에 즉시에 달라붙은 이들은 력량을 더 보충하면서 여러 구간에서 공격속도를 부단히 높여 최단기간에 맡은 구간의 전선늘이기를 끝내는 자랑찬 위훈을 세웠다. 무봉으로부터 삼지연읍까지의 가장 긴 구간의 송전선공사를 맡은 량강도송배전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애국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지난 8일 오전까지 송전선공사를 빛나게 결속하였다.

지난 2010년에 조기조업한 백두산선군청년1호발전소의 로동자들이 전력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는 속에서도 발전설비와 옥외변전소설비들의 정비보수와 교체작업을 불이 번쩍 나게 끝내였다. 현장지휘부와 전력공업성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밑에 그들은 7월에 들어와 2호발전설비의 정비와 불비한 부분품교체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기세로 8월에 들어와 발전소건설장에 대한 전력생산을 중단없이 보장하면서 옥외변전소의 주변압기정비와 단로기교체 및 보수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여 송전을 보장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철저히 갖추었다.

전력공업성의 일군들은 삼지연군에 대한 새로운 송전계통이 개설되는데 맞게 읍지구의 해당 개폐소에 설비들을 보충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잘하였다. 해당 부문과의 련계밑에 7월중에 필요한 설비들을 마련하였고 삼지연군송배전소의 로동자들을 불러일으켜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하였다.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이런 만단의 준비밑에 지난 8일 오후부터 기본구간의 송전선계통에 대한 준공검사와 무부하가압시험을 끝내고 드디여 지난 10일 삼지연군에 대한 송전시험에 진입하여 성공시키였다.

삼지연군에 대한 시험송전에 성공한 소식에 접한 전체 청년돌격대원들과 군인들, 건설자들은 크나큰 기쁨을 금치 못해하면서 당앞에 결의다진대로 하루빨리 1, 2호발전소건설과 설비조립을 끝냈 충천한 열의에 넘쳐 공격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춘

철도운수정상화를 위한 첨단제품 개발

국가과학원 철도과학분원에서

국가과학원 철도과학분원의 과학자들이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 새형의 초음파금속결합탐지기를 개발제작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초음파금속결합탐지기는 금속기계공장과 륜전기재운영단위들에서 중요설비와 금속생산물들의 정상적인 결함탐지를 진행하여 있을수 있는 오작과 사고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첨단기술기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룡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여야 합니다.》

충분한 크기의 액정화면현시, 전력소비와 무게를 최소화하여 휴대용으로 리용할수 있는 초음파금속결합탐지기는 설비,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일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이곳 과학자들이 현실조건에 맞게 우리 식으로 새로 개발한것이다.

우리 식의 초음파금속결합탐지기가 렬차들의 차축결함탐지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도입되게 됨으로써 철도운수정상화를 위한 또 하나의 과학적인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리용되고있는 값비싼 금속결합탐지기들의 대부분은 부피가 클뿐아니라 교류 220V를 사용하므로 휴대할수가 없었다. 결과 차축결합탐지에 시간과 로력이 많이 들고 기동성도 보장할수 없었다.

실장 손형선동무를 비롯한 철도과학분원의 과학자들은 현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초음파금속결합탐지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기어이 개발할것을 결심하고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액정화면현시판을 결합한 초음파금속결합탐지기의 개발은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였으며 제작과정에도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집단성원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리과대학의 과학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결사관철의 의지로 초음파금속결합탐지기개발을 다그쳐나갔다.

원장 박사 맹윤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째인 조직사업밑에 연구집단성원들은 초음파를 금속표면에 발사시켰을 때 주어진 속도로 전파해나가다가 금속조직변화 또는 이상매질의 경계면에서 반사되는 원리에 기초하여 반사된 수감신호의 전파시간에 따르는 거리측정, 수감신호의 세기에 따르는 결함의 크기분석, 신호전달시간에 따르는 조직구조변화정도평가 등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첨단수준의 초음파금속결합탐지기를 개발제작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휴대용초음파금속결합탐지기를 도입해본데 의하면 로력과 시간을 많이 절약하면서 간편하게 테루와 차축의 내부결함(터짐, 혼입물, 거품 등)을 탐지하고 위치와 크기를 판정할수 있게 되였다고 한다.

현대적인 초음파금속결합탐지기의 개발성과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을 가지고 설비와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확신성있게 벌려나갈 때 그 어떤 첨단설비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능히 개발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경철

불멸의 조국해방업적 천추만대에 빛내여나가리

각지 당조직들에서

8월 15일,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고 사회주의조선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민족사적경사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력사의 이날이 있어 민족수난의 암흑시대는 영영 끝장나고 우리 인민은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세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은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위용을 떨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시다.》

조국해방 일흔돐을 앞두고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우리에게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조국해방업적을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함경북도에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찾고싶어하는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열의가 높아지는데 맞게 도당위원회는 답사조직을 잘 짜고들고있다. 답사자들은 답사기간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연구발표모임, 시랑송모임, 문답식학습경연을 진행하면서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열렬한 조국애, 혁명적락관주의를 따라배우고있다.

황해남도당위원회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거점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당조직별로 도록해설모임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은 8월 15일을 맞으며 도안의 시, 군들에서 진행된 웅변경연을 통해서도 활발히 벌어졌다.

웅변경연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땅우에 안아오신 세기적변혁가운데서 가장 거대한 변혁이라는데 대하여 힘있게 확증하였다.

재령군, 벽성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도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에 대한 주제의 작품을 준비하여 혁동벌을 순회하면서 예술선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이 과정에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보람찬 삶과 행복을 누릴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시였기때문이라는것을 더 잘 알게 되였다.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도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여 조국을 찾아주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태양이시라는 제목으로 집중강습이 진행되였다.

함주군, 신흥군, 허천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당조직들과 농업부문 당조직들에서는 전투현장에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연구발표모임을 실효성있게 조직하고있다. 이 과정에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은 20성상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만고의 전설적위인이시라는것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량강도당위원회에서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와 참관 등을 활발히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조국해방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고있다.

특히 김정숙군, 대홍단군당위원회에서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고 답사와 참관조직사업을 단위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고있다.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고 혁명을 해온 긍지높은 인민인가를 다시금 절감하고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갈 결의를 가다듬게 하고있다.

강원도와 자강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조국해방의 날을 계기로 강연, 예술공연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주체적력량으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폭넓고 깊이있게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도서선전과 학습토론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 벌려나가고있는 조국해방업적교양사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천백배로 다져주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일념안고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장에서 14만산대발파 진행

선군조선의 장한 딸들이 거둔 승전소식에 접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커다란 기쁨에 넘쳐있는 속에 혜산-삼지연넓은철길건설장에서 9일 14만산대발파의 뢰성이 장쾌하게 울려퍼졌다.

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산중턱을 가로질러 수천m구간에 철길로반이 형성되게 되였으며 공사에 필요한 많은 량의 토량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삼지연군을 비롯한 백두산지구를 잘 꾸리는것은 혁명의 만년재보인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의 하나입니다.》

당의 뜻을 받들고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함경남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이 철길로반형성을 위한 대발파준비작업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켰다.

이곳 지휘관들은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를 뜻깊게 장식하기 위한 오늘의 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될 각오밑에 현장들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림으로써 온 건설장이 혁명열, 투쟁열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였으며 로력과 기계설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또한 련관부문 연구사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발파준비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이 제때에 해결되도록 하였다.

돌격대원들은 과학적인 지질조사와 측량에 기초하여 발파효률을 최대한 높일수 있게 장약실들의 위치를 정한데 맞게 백두의 혁명정신,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굴진속도를 계속 높여나갔다.

중대, 대대별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리면서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20여일만에 수십개소의 장약실뚫기를 완료함으로써 발파준비를 계획한 기일보다 앞당겨 끝냈다.

14만산대발파의 성공으로 기세충천한 함경남도려단안의 돌격대원들과 지휘관들은 삼지연군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훌륭히 꾸릴데 대한 당의 구상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울 일념안고 공사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에짚트아랍공화국방문을 마치고 귀국

【평양 8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새로운 수에즈운하 개통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에짚트아랍공화국을 방문하고 11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안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리길성 외무성 부상, 카림 무함마드 후쌉앗딘 하싼 고다 주조 에짚트아랍공화국 림시대리대사가 김영남동지를 마중하였다.

큰 규모의 자연박물관과 본관건물골조공사 결속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에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온 나라에 조국해방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이 날을 따라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장에서 착공후 불과 몇달동안에 덩지큰 자연박물관과 본관건물골조공사가 결속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슭에 웅장하게 일떠선 자연박물관, 본관건물골조는 우리 당의 정력적인 령도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지니고 걸음마다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한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건설지휘부일군들은 2단계개건공사에서 자연박물관과 본관건설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시공력량과 건설자재보장에 큰 힘을 넣으면서 전반적인 공사가 대상별, 날자별로 어김없이 수행되도록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였다. 현장들에서 대고조의 열풍을 고조시키는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의 화선식정치사업이 진공적으로 벌어졌다.

조선인민군 백광훈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본관건물골조공사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하였다.

부대지휘관들은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발동시키는 한편 들끓는 전투현장에 몸을 잠그고 맡은 공사를 단숨에 추진하기 위한 조직과 지휘를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부대장병들은 불리한 현장조건에서도 본관건물기초굴착을 추진하는 동시에 블로크찍기도 선행시켜 골조공사성과를 확대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자동차기중기와 혼합기 등 건설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공정수행과정에 많은 기공구와 지구를 자체로 만들어 리용하고 기발하게 착상한 공법들도 대담하게 받아들여 골조공사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대외건설지도국아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에게 동식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상식을 줄수 있는 종합적인 자연박물관건설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훌륭히 완공할 불타는 일념으로 골조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쳤다.

지도국일군들은 건설대상이 덩지가 큰 조건에서 시공력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골조공사를 흐름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혼합물생산과 부족되는 자재를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공사과정에 걸린 문제들을 현장에서 즉시에 풀어나가면서 우수한 단위들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골조공사성과가 끊임없이 확대되게 하였다.

자연박물관건설을 맡은 지도국아래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본받아 많은 량의 자재를 자체로 마련하고 시공과정에 기술규정과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골조공사에서 선군시대 건설자의 용맹을 힘있게 떨치였다.

공사장적으로 건설규모가 제일 큰 자연박물관과 본관건물골조공사를 끝낸 여러 단위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평양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맡은 대상건설을 최단기간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다그쳐 끝낼 신심드높이 계속혁신의 한길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며 조국을 찾아주신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개선문,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길이 전하는 이 력사의 기념비가 8월 15일을 앞두고 새겨주는 여운은 참으로 크다.

어버이수령님이시야말로 총대로 지난날 억눌리고 짓밟히던 우리 인민을 영웅적인민으로,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을 존엄높고 백전백승하는 강국으로 빛내여주신 절세의 애국자, 선군혁명의 위대한 개척자이시라는것을 오늘도 개선문은 천만심장들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여기 개선문에는 다른 기념비들에서 볼수 있는 화려한 비문이 따로 없다.

지어 현판조차도 없다. 개선문의 중심에서 찬란히 빛을 뿌리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강도 일제를 쳐물리치고 조국을 해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업적이 이 불멸의 혁명송가에 그대로 담겨있다. 개선문이 안고있는 사상적의미, 조국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력사적총화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개선문의 중심에 새겨진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바라보느라면 격정은 절로 솟구친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

한자한자 읽어내려갈수록 조국해방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헤치신 항일의 혈전사가 뜨겁게 안겨와 눈굽젖어듦을 금할수 없다.

간악한 강도 일제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식민지노예로 짓밟혔던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신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

그이께서 계시였기에 일제식민지통치로 하여 시들어가던 우리 조국은 재생의 새봄을 맞이할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20세기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계에 높이 떨칠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있어서 외세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확고한 터전을 마련해준 위인이야말로 대를 두고 길이길이 칭송해야 할 영웅중의 영웅, 은인중의 은인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김일성장군!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 위대한 주체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그이는 정녕 희세의 전설적영웅이시고 가장 걸출한 위인이시다.

개선문에 부각된 《1925》와 《1945》라는 글발의 중심에 빛나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서예적형상은 바라볼수록 깊은 추억을 불러온다.

주체14(1925)년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불타는 맹세를 다지시며 14살어리신 나이에 압록강을 건느신 때로부터 우리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마다에는 일제와 싸워 승리하는 길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영원히 승리하는 백승의 진리가 새겨져있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기까지 장장 20성상!

그것은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의 기치밑에 자주성의 원칙에서 진행되는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은 영광스러운 투쟁행로였다.

10대의 그 시절에 벌써 《E.C》의 결성으로 세계제국주의와의 정면대결을 선언하시고 주체사상의 창시와 더불어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히시였으며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서 유격전이 기본전투형식으로 된다는 새로운 사상을 천명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20대에 새형의 혁명적무장력의 탄생으로 항일대전을 선포하시였다.

항일의 결전장에서 력사가 길이 찬양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며 흐른 우리 수령님의 항일혁명력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한생을 모두 합쳐도 비기지 못할 걸출하고도 위대한 행로로 수놓아져있다.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마다에 새겨진 그 거룩한 자욱자욱들이 뜨겁게 되새겨진다.

갓 조직된 청소한 유격대로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남북만진출, 세계정권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혁명정부의 수립, 대포, 비행기로 무장한 적 5 000여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이룩한 소왕청유격구방위전투에서의 기적, 반《민생단》바람의 극좌적인 회오리속에서도 주체로선을 견결히 고수하시여 승리자들의 경축회합으로 조선혁명의 분수령을 마련한 남호두회의, 식민지나라조건에서의 상설적인 통일전선체조직의 빛나는 모범인 조국광복회창립, 조선혁명의 본거지, 책원지인 동시에 심장부, 중심적령도거점이였던 백두산밀영의 창설, 동서고금에 없는 전혀 새로운 형식의 공격전투로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보천보전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시련을 끝끝내 이겨낸 고난의 행군…

그 하나하나마다에서 맥박치는 우리 수령님의 거룩하고도 비범한 천리혜안의 예지와 백전백승의 지략과 담력, 강철의 신념과 의지는 오늘도 개선문에서 빛을 뿌리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에 실려 천만의 심장을 격동시키고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의 승리로 인민들에게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수수천년 그리도 애타게 바라고 기다리던 이런 위대한 은인, 걸출한 위인을 모신 환희와 감격을 어찌 목이 터지게 웨치는 만세의 환호성으로만 표현할수 있으랴.

민족의 태양을 우러르고 받드는 이 나라 수천만의 마음이 그대로 가사가 되고 선률이 되여 창작된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여기 력사의 기념비 개선문에도 새겨져 지금도 이 땅에 장엄한 메아리를 울리고있다.

한자한자 정히 새겨진 불멸의 혁명송가의 글발을 읽어내려갈수록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을 밑뿌리채 뒤흔들던 20대 청년장군 백두산호랑이 김대장의 거룩한 영상이 어려오는듯 싶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이 우렷이 안겨와 격정을 금할수 없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여기 유서깊은 모란봉기슭에 개선문을 세우도록 하시여 주체적력량으로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신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개선문의 기본주제로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개선문에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새겨넣어야 합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정녕 부르면 부를수록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르게 하고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그이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혁명업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하는 이 불멸의 혁명송가보다 더 훌륭한 개선문의 주제가 또 어데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이 성스러운 개선문으로 얼마나 많은 이 나라 아들딸들이 영웅이 되여, 승리자가 되여 들어섰던가.

수십년세월 적들과의 투쟁속에서 끝까지 조선로동당원의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지켜 승리하고 기어이 조국의 품에 안긴 수많은 비전향장기수들, 준엄한 적구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답게 용감히 싸우고 돌아온 조선인민군 병사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국력을 온 세상에 떨치고 태양의 축복속에 평양시내를 누비던 이 나라의 평범한 과학자들, 선군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친 정성옥, 계순희선수들의 뒤를 이어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금메달로 장식하며 어머니조국에 기쁨을 더해주는 미더운 체육인들…

세상에는 승리하고 돌아온 위인의 업적을 칭송하는 개선문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개선문처럼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영원한 백승의 철리를 심어주며 세기와 더불어 더욱 더 빛나는 개선문은 더는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우리의 개선문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선군조선의 승리의 상징으로 길이 빛날것이다.

개선문을 눈부시게 비쳐주며 태양은 오늘도 빛난다.

강성국가의 새봄을 맞이하여 이 땅을 진감할 환호성을 우리 천만군민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빛을 뿌리는 여기 개선문에서 똑똑히 들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준혁
사진 본사기자 김광혁

항일무장투쟁의 최후승리는 이렇게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계승본) 제8권을 펼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간고하고 시련에 찬 항일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마련하신 주체적혁명력량에 의하여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을 통해 단련된 혁명군대원들을 골간으로 하고 국내의 애국적인 청장년들로 무장대오를 확대한 다음 여기저기서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린다면 우리 자체의 힘으로 얼마든지 나라를 해방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최후결전을 준비하시던 나날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할데 대한 주체적인 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최후결전을 이끌어나갈 주력군으로 하여 전민항쟁의 거세찬 불길을 온 나라에 지펴올리신 력사적사실에 대하여 수록한 회고록 제8권의 구절구절이 천만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킨다.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

주체적력량에 의한 조국해방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원칙이였다.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전략적방침이 채택된 소할바령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의 하나가 주체적혁명력량에 관한것이였다.

이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계승본) 제8권 《소할바령에서》에는 이렇게 서술되여있다.

최후결전과 새 조국건설, 이 두가지는 우리 나라의 력사를 새롭게 창조하고 우리 인민의 운명에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전략적과제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대신해줄수도 없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해야 하고 조선인민이 해내야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을것은 우리자신이 장기간의 항일혁명과정을 통해 마련한 주체적력량뿐이였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여 최후결전을 벌릴 때 남들이 스스로 우리를 도와주면 좋은것이다, 그래서 동무들, 수준을 두세등급씩 높일수 있는가고 물었더니 그것도 해낼수 있는가고 물었더니 그것도 해낼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진짜혁명가와 가짜혁명가, 신념과 배신을 가르는 엄혹한 시련의 바람이 휘몰아치던 1941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건지하며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할데 대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다. 그해 쟈피거우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시적난관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 자신의 힘으로 조국을 해방하고 조선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신심과 배짱을 가져야 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우리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호에는 조선민족의 힘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하고 이 땅우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 수령님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었다.

최후결전의 주력군—조선인민혁명군

조선인민혁명군은 조국해방을 주체적력량으로 이룩하는데서 주력군이였고 민족의 독립의지와 신념의 최고대표자였으며 항일혁명의 조직자, 령솔자였다. 우리 인민은 일제를 타승할수 있는 실제적인 군사력은 조선인민혁명군밖에 없다고 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최후결전의 주력군으로 준비시키시던 나날에 대하여 돌이켜보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백두광야에서 련마해온 유격전법들을 더욱 완성하는 한편 정규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전법들을 익혀나감으로써 조선혁명을 담당한 주력군으로서의 정치군사적면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어나갔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며 몸소 강사가 되시여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풍만한 자원과 아름다운 산천을 가진 조국에 대하여 들려주시였다.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발표하신 저작들과 조선력사, 조선지리 등 조선혁명에 절실히 필요한 문제들과 과목들을 위주로 한 학습을 통하여 대원들은 조선혁명의 직접적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훌륭히 갖추어나갔다. 군사리론학습과 군사실동훈련도 맹렬하게 하였다. 전술훈련, 사격훈련, 수영훈련, 스키훈련, 락하산훈련, 무선통신훈련을 비롯하여 현대전에 대비한 각종 훈련을 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대원들이 훈련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여준데 대하여서도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그들은 무선통신훈련에도 직심스러웠지만 스키훈련, 수영훈련, 락하산훈련, 도하훈련에도 남자들과 꼭같이 참가하였다. 락하산훈련을 시작할 때 모성들과 일부 허약한 녀대원들을 제외시키기로 하였지만 그들은 조국해방의 날을 앞당기는것이 사랑하는 자식들과 다시 만날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서 훈련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주체34(1945)년 8월 9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준비에 기초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전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전민항쟁의 불길로

전체 인민을 반일항전에 동원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우리 자체의 힘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하자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드팀없는 의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민항쟁의 불길이 온 강토에 타번지던 나날들을 회고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전민항쟁이란 무장봉기를 떠나서는 생각할수도 없고 활동거점이 없이는 성사될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일찌기 전민항쟁과 관련된 로선을 제시하면서 땅림산줄기를 비롯한 큰 산줄기들에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의 활동기지, 작전기지, 후방기지, 전민항쟁력량의 무력적지탱점으로 될수 있는 비밀근거지들을 꾸리는 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렸습니다. …

각지에 파견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정치공작원들에 의하여 국내외 도처에 당조직들과 조국광복회조직들, 항쟁조직들이 꾸려졌다. 그가운데는 김원주동지가 망라되여있던 평양에서 조직된 조국해방단, 서울에서 조직되여 국내각지와 일본에까지 그 세력을 확대한 김일성대를 비롯하여 각이한 명칭의 조직들이 있었다. 일본침략군 내부에도 전민항쟁조직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하신것처럼 1945년 8월 우리 나라에서 적의 통치체계가 그렇게도 빨리 허물어지게 된것은 바로 전민항쟁조직들이 도처에서 들고일어나 적들이 틀고앉아있던 통치기관들을 철저히 짓부셔놓았기때문이였다.

조선인민자체의 주체적력량에 의하여 조국해방이 이룩되였다는것을 밝히고있는 자료들은 많다.

주체34(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벌써 한 외교문서에서는 《조선공산군(김일성부대)이 적절한 시기에 조선반도를 휩쓸지도 모른다.》고 하였으며 일제를 패망시키고 조국을 해방하는데서 조선인민혁명군이 논 역할에 대하여 이전 쏘련사람들은 《조선…은 40년간(1905년이래)…압제자들에 대한 투쟁을 독자적힘으로 계속하였다.》고 하였다.

진정 조국의 해방은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투쟁의 총화인 동시에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전체 조선민족이 단결하여 거족적으로 벌려온 영웅적인 항전의 결산이였다.

본사기자 백영미

70년세월이 흘러도

나이가 들면 더더욱 추억에 사는것이 인간인듯싶다. 나도 추억의 갈피에 새겨진 한생의 잊지 못할 사연들을 때없이 더듬군 한다.

조국해방, 전체 조선인민이 기쁨과 감격에 울고웃으며 설레이던 그때 우리 투사들의 격정은 얼마나 컸던가.

해마다 맞는 조국해방의 날이지만 70년이라는 뜻깊은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는 이해의 8월 15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나의 추억은 더욱 뜨겁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우리 인민에게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마련하여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돌이켜보면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죽지 못해 살아온 우리 인민이였다. 나의 어린시절도 눈물겨운 추억밖에 주는것이 없다.

그러하던 내가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 나선 때부터였다.

우리가 헤쳐온 항일무장투쟁의 길은 걸음걸음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시련의 련속이였다.

하지만 김일성장군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웃으며 헤칠수 있었다.

몸소 기관총을 잡으시고 결사전의 앞장에 서시여 우리를 승리에로 부르시였고 탄우속을 헤치시며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놓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그 모습을 어찌 수십년세월이 흐른들 잊을수 있겠는가.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새우신 밤은 얼마이며 대원들을 위해 기울이신 사랑과 헌신의 세계가 얼마인지 항일대전에 참전한 우리도 다는 모르고있다.

하기에 조국해방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이즈음 우리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만 가는것이다.

우리 수령님 찾아주신 조국이여서 그토록 소중하고 위대한 이 조선,

날로 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대할수록 지난 7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제4차 전국로병대회를 잊을수 없다.

그날 나는 혁명의 1세로 내세워주시며 대회의 주석단에까지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에 절로 머리가 숙어졌다.

이제는 항일의 그 나날들을 뜨겁게 추억할수 있는 투사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혁명선배들을 끝없이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이 있기에 백두밀림에 나래치던 항일의 그 정신은 이 땅에 영원히 흐르고있는것이다.

사상과 령도, 풍모에서뿐아니라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의 미래는 얼마나 밝고 창창한것인가.

위대한 수령님들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른 투사들의 그 정신, 그 신념을 그대로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 길에 우리 조국의 존엄도 영광도 있다는것을 부디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투사들을 대신하여 후대들에게 하고싶은 당부중의 당부이다.

항일혁명투사 황순희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고있다. —삼지연대기념비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항일혁명업적 천만년 빛내여가자

투사들의 념원 꽃핀 강산에 빨찌산의 노래 뜨겁게 울린다

명곡 《눈이 내린다》를 들으며

기다리고기다리던 조국해방 일흔돐이 눈앞에 다가왔다. 뜻깊은 8월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업적에 대하여,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한 혁명선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에 대하여 더욱 가슴뜨겁게 새겨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합니다.》

항일대전의 만단사연을 전해주는 수많은 노래들가운데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류달리 사랑하는 노래가 있다. 부르면 부를수록 많은 련상이 떠오르게 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끝없는 사색에 잠기게 하는 명곡 《눈이 내린다》,

노래 《눈이 내린다》는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 수만리길을 헤쳐오신 전설적영웅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헌신과 로고의 력사가 있어 혁명선렬들의 념원이 꽃펴난 선군조선의 환희로운 오늘과 찬란한 래일이 펼쳐져있다는 심오한 철리를 감명깊게 밝혀준 혁명전통주제가요의 대표작의 하나이다.

눈이 내린다 흰눈이 내린다
빨찌산이야기로 이 밤도 깊어가는데
불밝은 창문가에 흰눈이 내린다
…

노래는 눈내리는 밤의 빨찌산이야기라는 평범한 생활적계기속에서 간고하고도 장구한 조선혁명의 력사를 산 화폭으로 체험할수 있게 하고있으며 명곡의 사상예술적핵으로 되는 《이 나라 빨찌산들의 그 념원 꽃핀 강산에》라는 3절가사의 명구절을 통하여 우리의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에 대한 시대의 물음에 명확한 예술적해답을 줌으로써 행복하면 할수록 우리 수령님을 따라 혁명선렬들이 헤쳐온 항일전의 나날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상을 감명깊게 강조하고있다.

빨찌산이야기, 그것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전설적영웅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업적에 대한 인민의 경건한 추억이고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의 해방을 위한 혁명의 길에 모든것을 다바쳐싸운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을 새겨가는 인민의 목소리이다.

조용하면서도 설레임으로 충만되고 내성적이면서도 강렬하게 흐르는 명곡의 선률은 참으로 특색있다. 특히 처음에는 은은하게 흐르던 선률이 《이 나라 빨찌산들의 그 념원 꽃핀 강산에》라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마음의 마지막금선까지 파고드는 강렬하고도 절절한 서정의 폭발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심금을 완전히 틀어잡는다. 간결한 선률속에서 충격과 흥분, 사색과 격정, 추억과 맹세라는 극적인 감정을 다같이 훌륭하게 펼쳐보이는 노래는 오늘도 특색있는 조선식가요명곡의 하나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노래는 지금으로부터 50년전인 주체54(1965)년에 창작되였다.

그해 1월 눈내리던 어느날 밤이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혁명전통주제의 노래를 짓기 위하여 사색을 거듭하던 작곡가 리면상선생은 그날도 창작적명상에 잠겨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줄지어 늘어선 가로등들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명랑한 창가마다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불빛, 소리없이 내리는 밤하늘의 눈송이들…

한폭의 그림과도 같이 아름다운 거리를 지나 집에 들어서니 부엌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방안에서는 아이들이 가지런히 누워 잠자고있었다. 참으로 행복한 밤이였다. 늘 보아오는 겨울밤의 풍경, 가정의 모습이지만 한순간 리면상선생은 새삼스럽게 갈마드는 느낌으로 하여 굳어져버렸다. 문득 그의 눈앞에는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나날 안도의 눈내리는 겨울밤 삭정이를 치마폭에 싸쥐시고 불을 지피시던 강반석어머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화폭은 다시 백두밀림속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의 창문가로 바뀌여지더니 혁명선렬들의 조국해방의 념원이 꽃핀 오늘의 행복의 이 밤으로 이어지는것이였다.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 흰눈은 변함없이 내리건만 거기에는 얼마나 뜻깊고 위대한 전변의 력사가 깃들어있는것인가. 밀림의 눈으로부터 불밝은 거리의 눈으로, 혈전의 눈으로부터 오늘의 행복의 눈으로! 이것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땅에 안아오신 행복의 상징이 아니겠는가.)

끝없이 북받쳐오르는 흥분을 안고 리면상선생은 피아노앞에 앉았다. 사정없이 휘몰아치던 항일의 눈보라와 불밝은 행복의 거리에 춤추며 내리는 눈송이들의 대조적인 모습이 그대로 노래의 선률에 담겨졌다.

주체59(1970)년 11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훌륭한 노래를 창작한 리면상선생을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연단에 세워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리면상선생의 토론을 주의깊게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론을 잘했다고 하시면서 음악에서 조선적인것을 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눈이 내린다》와 같은 그런 노래가 바로 조선적인 노래라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이 노래를 듣고 감동되였던 한 외국수반에 대한 이야기도 대회참가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 나라에 이런 훌륭한 명곡이 많고 이런 노래를 짓는 재능있는 작곡가들을 많이 가지고있는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고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노래가 창작된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보다 선명히, 보다 새롭게 사람들의 가슴에 깃들며 깊은 감회와 격정을 불러일으키는것이 바로 명곡 《눈이 내린다》의 감화력이다.

노래 《눈이 내린다》의 철학적깊이와 예술적가치를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문학예술혁명을 지도하시던 나날에 이 노래의 성격과 양상에 가장 적중한 예술형식을 구상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첫 녀성기악중주조를 무어주시였고 노래 《눈이 내린다》를 훌륭한 기악중주곡으로 완성시켜주시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래 《눈이 내린다》를 주제로 한 음악, 무용, 미술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예술작품들을 창작하도록 하시였으며 세기와 세기를 이어가며 높이 울려퍼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주체97(2008)년 6월 동평양대극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예술단체들인 공훈국가합창단과 국립교향악단이 출연하는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에 대한 감상회가 진행되였다. 한편의 작품을 놓고 감상회가 진행된것도 특이한 일이지만 그것이 일으킨 충격도 이를데없이 컸다. 음악세계에 깊이 잠긴 사람들의 눈앞에는 세차게 휘몰아치는 백두의 눈보라를 진두에서 헤치시며 철의 대오를 이끄시고 고난의 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안겨오는가 하면 끝없이 노호하는 밀림의 바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원쑤들의 머리우에 불벼락을 들씌우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대원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안겨오기도 하였다. 받아안은 감흥이 너무도 격동적이여서 사람들은 《희한하고 또 희한한 걸작중의 걸작, 대작중의 대작》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새 세기의 명작으로 창조된 김일성상계관작품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는 수천만의 심장을 격동시키며 주체예술, 선군예술의 위력을 내외에 크게 떨치였다.

어버이수령님들께서 이 노래를 그처럼 사랑하고 내세워주신것은 길지 않은 한편의 노래에 민족의 넋이 진하게 어려있고 우리 당의 혁명력사와 위대한 전통, 주체혁명위업의 승리가 력력히 비껴있기때문이였다.

절세의 위인들의 손길아래 국보적인 명곡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빛내이면서 주체예술의 눈부신 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명곡 《눈이 내린다》는 오늘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의 심장속에서 높이 울리고있다.

훌륭한 노래는 사람들에게 깊은 정서와 열정을 안겨주는 생활의 길동무이고 투쟁의 량식이며 혁명의 힘있는 무기이다.

조선의 명곡 《눈이 내린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깊이 새겨주고있으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영원한 메아리》와 같은 새로운 명곡들로 이어지면서 영원한 빨찌산이야기를 전하고있다.

…
눈이 내린다 흰눈이 내린다
이 나라 빨찌산들의 그 념원 꽃핀 강산에
이 밤이 지새도록 흰눈이 내린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래일이 있을수 없는것처럼 항일대전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의 계승속에 오늘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이 있는것이며 조국과 민족의 래일이 빛나는것이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열백번 바뀌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것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항일혁명선렬들의 념원을 심장에 새기고 백두의 혈통을 억세게 이어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고 혁명의 붉은기를 영원히 휘날려갈것이다.

우 정 혁

새 조선의 첫 노래—《조선행진곡》

온 나라가 환희와 감격으로 끓고 인민의 마음속에 비로소 광명이 도래한 조국해방의 력사적순간이 한편의 노래에 생동하게 기록되여있다.

노래 《조선행진곡》은 조국이 해방된 다음날인 1945년 8월 16일에 창작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다운 음악은 시대의 요구에 충실하며 시대의 사명에 이바지한다.》

이 작품은 김원균작곡가가 직접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노래이다.

해방의 크나큰 감격과 기쁨을 안고 이 노래를 창작하기 이틀전까지만 하여도 막벌이로동자였던 그가 어제날의 인생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새 조선의 주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뗀것이였다.

조국해방은 이 땅우에 새 인간들의 탄생과 극적인 운명전환을 안아온 위대한 사변이였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조선의 운명을 두고 가슴을 치며 통곡도 해보고 《시일야방성대곡》으로 민족의 울분을 터쳐도 보았지만 식민지노예의 쓰라린 아픔을 안은 우리 인민은 노래를 불러도 구슬픈 노래만을 불러야 했다. 그러나 조국해방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온갖 착취와 예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였을뿐아니라 그가 남긴 비애와 슬픔의 모든 노래까지도 깨끗이 가셔버렸다.

민주의 새 조선을 일떠세우는 자유롭고 행복한 인민의 발걸음과 하나로 어울리는, 어둠속에 신음하던 인민이 광명을 찾고 앞으로 나아가는 새 조선의 발걸음이 체현된 인민의 행진곡이 태여나는것은 시간문제였다.

지옥같은 왜놈병기소의 콩크리트담장을 뛰쳐나와 8.15해방을 경축하는 사람들의 물결속에 뛰여들어 《조선독립 만세!》를 목청껏 부르는 김원균의 눈앞에는 암흑에 시달리던 인민의 가슴에 광명을 안겨주는 위대한 삶의 태양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이 땅우에 광명의 새 아침을 펼친 위대한 태양은 다름아닌 일제에게 짓밟혀 신음하던 조선인민에게 자유와 해방, 인간의 참다운 권리와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너무도 오래동안 일제의 발굽밑에 짓밟혀 자기의 천성적인 재능마저도 지지리 억눌렸던 김원균의 가슴속에서는 비로소 약동하는 희망의 새 선률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입가에서는 《꽃동산 삼천리 새 동이 튼다 새로운 아침에 광명이 왔다》라는 새 노래의 가사가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3천만인민의 감정을 그대로 담은것으로 하여 가요 《조선행진곡》은 전국각지로 급속히 퍼져갔다.

…
나가자 앞으로 삼천만동포여
앞으로 나가자 민주조선 만만세

이 노래에 이어 우리 조국에서는 해방을 맞이한 인민의 드높은 건국열의를 반영한 투쟁과 전진의 노래들이 련이어 창작되여 울려퍼졌다.

노래 《조선행진곡》은 부강조국건설의 첫걸음을 장엄하게 내짚은 해방조선의 모습으로 오늘도 인민의 추억속에 길이 남아있다.

본사기자 리수정

항일선렬들의 혁명정신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주작봉마루에 어려있는 투사들의 고결한 넋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가고있다.

마두산혁명전적지를 찾아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불굴의 혁명신념을 굳게 간직하고있다.

노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를 부르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걸어갈 굳은 맹세를 다지고있는 평천영예군인수지가공공장 종업원들

회상기학습을 통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고있는 구장고회석광산 로동계급 본사기자 찍음

수필 하루와 영생

조국해방 일흔돐을 앞두고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았던 나의 발걸음은 한 투사의 반신상앞에서 멈춰섰다. 화강석에 새겨진 글줄이 아프게 나의 가슴을 허비였다.

김봉석동지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1923년 1월 3일생
1936년 3월 조선인민혁명군 입대
1945년 8월 14일 전사

8월 14일, 조국의 해방을 하루 앞두고 너무도 애젊은 청춘을 바친 항일혁명투사, 그처럼 고대하던 해방의 날을 눈앞에 두고 조선혁명가들이 심장에 새긴 인생판이 과연 어떤것인가를 값비싼 희생으로 증명한 투사의 빛나는 삶은 참으로 귀중한 인생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새겨주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대원들중에는 조국해방을 하루 앞두고 희생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김봉석이였습니다.

…내가 몹시 아끼던 사람이였는데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혁명렬사릉 참관자들이 해방을 하루 앞두고 전사한 그의 반신상앞에서 너무 아쉬워 모두 발길을 떼지 못한다고 합니다.》

투사의 반신상을 바라보느라니 조국해방을 확신하며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수많은 렬사들의 모습이 다시금 눈앞에 어려왔다.

위대한 한별을 받들어 조선혁명을 개척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인 김혁, 차광수, 최창걸…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는 길에서 꽃다운 청춘을 바친 오중흡, 최희숙, 마동희…

빼앗긴 조국을 찾는 길이 그렇듯 간고하였기에, 기어이 찾아야 할 귀중한 조국이였기에 그 길에서 수많은 선렬들이 희생되였고 해방의 날을 눈앞에 두고서도 기꺼이 고귀한 생명을 바친것 아니던가.

하기에 이 나라의 혁명시인 조기천은 장편서사시 《백두산》에서 장백의 높고낮은 고개고개에 새날을 위해 싸우다 이름도 없이 묻힌 이들이 몇만이나 되는가 헤여보라고 격조높이 웨친것 아니랴.

해방의 날을 하루 앞두고 시신조차 남기지 못하고 희생된 항일혁명투사, 비장하고 애석한 그 희생앞에서 나의 생각은 깊어만 갔다.

항일혁명선렬들이 마두산혁명전적지의 구호나무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글발을 어떤 인생판을 안고 새기였는지 더욱더 뜨겁게 절감하였다.

혁명의 첫시작을 떼던 그때에나 혁명의 승리를 앞둔 그 시각에나 변치 않았던 투사들의 혁명적인생판은 오직 하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조국해방은 반드시 이룩되며 우리 민족은 그 품속에서 끝없이 번영하리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였던가.

이런 신념으로 떠안아올린 력사의 8.15였다.

백두에서 다져진 이런 억척같은 신념은 세대를 이어 련면히 이어지며 이 땅우에 승리와 영광의 천만리길을 열어놓았다. 그 신념은 전쟁의 3년간 수많은 영웅전사들이 목숨과 맞바꿔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게 하였으며 수령결사옹위의 길에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김영조영웅과 같은 장한 아들딸들을 낳았다.

오늘은 선렬들이 지녔던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새 세대들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고동치며 최후승리의 그날을 앞당겨오고있다.

그렇다. 진정 조국의 해방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투사들의 그 신념, 그 정신이 있어 우리의 8.15가 더욱 빛나고 바로 그래서 이날이 그처럼 소중하고 자랑스러운것 아니랴.

오늘도 22살 꽃나이청춘의 모습으로 주작봉마루에 서있는 투사에게는 일점혈육도 없다. 허나 투사가 그처럼 념원했던 해방된 조국땅에서 태여난 사람들모두가 그를 잊지 않고있으며 세대를 이어가며 투사의 반신상앞에 맹세의 꽃다발을 놓아드리고있다.

나는 가슴에 정히 품고있던 꽃송이를 투사의 반신상앞에 놓아드렸다.

투사는 나에게 아니 우리 세대에게 이렇게 절절히 당부하는것만 같았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승리를 앞둔 하루전에도 목숨을 기꺼이 바쳐야 할 그런 순간이 닥쳐온다면 주저하지 말라고, 그런 빛나는 삶이 사람들의 기억속에 영생한다고.

조 향 미

백두산으로 굽이치는 계승자들의 대오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와 함께

조국해방 일흔돐을 앞둔 이즈음 전국청소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원들이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백두산으로의 행군길을 다그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는 행군답사를 기본으로 하여야 합니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출발모임을 가진 답사행군대원들은 대오마다에 붉은기를 펄펄 날리며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높이 백두산으로, 백두산으로 향하고있다.

소소리 뻗은 이깔숲에도, 이름없는 바위츠렁에도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숭고한 발자취가 깃들어있어 삼가 마음이 절로 숙연해지는 백두산지구의 혁명전적지들,

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대오를 이끄시고 강도 일제에게 짓밟힌 보천보의 밤하늘에 홰불을 지펴올리시여 전민족을 거족적인 반일성전에로 불러일으키신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지휘처와 여러 전투장소들을 돌아보았다.

백두산으로 향하는 행군길은 순탄치 않다. 답사행군대원들의 도보행군은 하루에 보통 50~70리이다. 무더위가 계속되다가도 때아니게 소낙비가 쏟아져 답사행군대원들의 온몸은 땀과 비에 늘 젖어있다.

하지만 백두산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더 억세여지고있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 참으로 그 길은 가슴마다에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을 받아안고 백두의 혁명전통을 끝없이 빛내여가는 길,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는 성스러운 행군길이다.

전진하는 대오와 더불어 각 도별 전투속보경연이 활발히 벌어져 답사행군대원들의 용기를 백배로 더해주고있다. 대오가 지나가는 길량옆과 수림속에 《백두산이 우리를 부른다》, 《보천보의 홰불을 심장에 새겨안고 백두의 행군길을 승리적으로 다그치자!》라는 글발들이 나붙어 대오를 떠밀어주었다.

행군대가 보서등판을 넘으면서 행군은 절정을 이루었다. 해발 2천m가 넘는 중흥등판으로 올리뻗은 가파로운 등판길은 붉은 기폭을 앞세우고 치닫는 답사대오로 하여 장관을 펼치였다.

앞장에서 달리던 행군대의 지휘관들이 손나팔을 해가며 웨치는 고동구호가 산발을 쩌렁쩌렁 울렸다.

《동무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백두산을 안고 만난시련을 이겨내고 싸워이긴 투사들처럼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백두산으로 향한 행군길을 끝까지 걸어갈 답사행군대원들의 불같은 의지가 전대오에 차넘쳤다.

마침내 대오는 백두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중흥등판에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제비와 더불어 밀림의 바다, 감자꽃바다가 층층 펼쳐진 등판에 오르니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순간 백두산을 우러러 답사행군대원들은 《만세!》환호를 터쳤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갈 신념의 맹세가 한껏 어려있었다.

특파기자 전철주

어버이수령님 찾아주신 조국이 있어 태양민족의 오늘과 래일이 있다

문맹퇴치운동으로부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로

우리 인민이 어버이수령님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칭송하여 터치는 부름은 참으로 많고많다.

절세의 애국자, 걸출한 수령, 민족의 어버이, 강철의 령장,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희세의 정치원로, 인류의 태양…

그속에는 위대한 스승이라는 뜻깊은 부름도 있다.

그렇다. 우리 수령님은 해방전 무지와 몽매만이 짙게 서려있던 이 땅우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육의 나라, 사회주의문명국가의 억센 주추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스승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방후 우리는 민족문화를 빨리 발전시키는 방침을 내세우고 문맹퇴치사업을 힘있게 진행하였으며 인민교육을 널리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조국이 걸어온 긍지높은 길을 뒤돌아볼수록 뜨겁게 어려오는 부름이 있다.

해방후 문맹퇴치운동으로부터 오늘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의 높은 령마루에로!

남들같으면 몇세기를 두고도 오를수 없는 그처럼 눈부신 비약의 길을 불과 70년이라는 기간에 새겨온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되새겨보는 이 시각 우리의 마음속에 후덥게 떠오르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30년전 뽀르뚜갈공산당대표단을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문맹퇴치운동을 벌리던 때로부터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문화혁명수행에서 거둔 성과에 대하여 긍지높이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나라를 해방하였을 때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는 겨우 몇십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밑천으로 하여 자체의 민족간부를 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은 120여만명의 인테리대군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해방후 우리 당이 키워낸 인테리들은 사상적으로 건전하며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합니다. 그들은 지금 40대, 50대의 일군으로서 한창 마력을 내여 일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민족간부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

여기에는 얼마나 가슴뜨거운 만단사연이 깃들어있었던가.

해방후 모든것을 령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조국이였다. 그중에서도 제일 부족한것이 민족인재였다.

일제의 악착한 민족우매화정책과 식민지노예교육의 후과로 해방전 우리 나라 인구의 대다수가 문맹자였다.

해방직후 북조선에만 하여도 230여만명의 성인문맹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가. 특히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과 농민들은 대부분이 글을 모르는 눈뜬 소경이였다. 이렇게 많은 문맹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없었으며 근로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 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맹퇴치사업의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주체35(1946)년 11월에 문맹퇴치에 관한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고 문맹퇴치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광범히 전개하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몇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문맹을 완전히 퇴치하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게 되였다.

나라없던 세월 모진 천대와 가난속에 배울래야 배울수 없었던 우리 인민, 낫놓고 기역자도 모르고 제 이름 석자도 쓸줄 모르던 사람들이 세상에 태여나 처음으로 우리 글을 익히고 고마움의 눈물지으며 어버이수령님께 제손으로 감사의 편지를 삼가 써서 올리던 그 나날의 사연들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해방후 연필문제를 나라의 첫 의정으로 토의하신 우리 수령님은 한평생 교육문제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신 위대한분이시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전선에서 싸우던 대학생들을 대학으로 소환하시는 류례없는 력사를 창조하시고 전화의 불길속에서 인류사에 있어본적 없는 새로운 교육체계인 공장대학을 창설하신 우리 수령님,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6년부터는 전반적초등의무교육을, 1958년부터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을, 1970년대부터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시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억세게 키우시였다.

주체66(1977)년 9월 5일에는 불멸의 교육강령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여 나라와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세상에는 이름난 위인들과 정치가들도 많았지만 자주적인간육성을 위한 교육테제를 내놓으신분은 오직 우리 수령님 한분밖에 없었다.

수십성상 끊임없는 사색과 열정을 바치시며 주체교육발전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현대문명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에서도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한 전민학습, 전민교육체계를 이미 수십년전에 정연하게 세워놓을수 있었다.

나라가 어려운 길을 걷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도 이 땅에 변함없이 높이 울린 배움의 종소리를 우리는 잊을수 없다. 시련의 눈보라는 세찼어도 우리 아이들의 배움의 창가에는 사랑의 해빛이 흘러넘쳤고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소리가 만사람의 가슴을 적시며 높이 울려퍼지였다.

오늘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실시와 같은 경이적인 력사적사변을 마련한데 이어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속에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로 줄달음쳐 달리고 있다.

일터들을 찾으실 때마다 과학기술보급실에도 들리시여 근로자들을 건전한 사상의식과 함께 높은 지식을 소유한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되게 하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풍치수려한 대동강의 쑥섬에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의 위력한 거점인 과학기술전당을 건설할것을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앞장에서 진두지휘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문맹퇴치운동으로부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로!

진정 절세의 위인들의 품속에서 우리 조국이 걸어온 긍지높은 70년력사가 비껴있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빛나는 리정표와도 같은 이 부름이다.

이 땅에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끝없이 바뀌여도 조국과 인민을 품에 안아키우신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은 번영하는 조국의 위용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훈

잠 못 드는 8월의 밤에

기관차체육단 부원 전춘성동무의 가정을 찾아서

요즘은 온 나라가 명절처럼 설레인다. 우리 선수들이 국제경기마다에서 련속 안아오는 승전소식으로 온 나라 가정과 일터마다 즐거운 웃음꽃이 피여나고있는 속에 제일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 체육인들일것이다. 얼마전 우리가 찾았던 한 체육인가정에서도 이에 대하여 후덥게 느낄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인들은 나라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기관차체육단 부원 전춘성동무의 가정은 그야말로 체육인가정이라고 부를수 있는 류다른 가정이다. 축구와 정구종목에서 이름떨친 부모의 뒤를 이어 딸은 물론 손자, 손녀까지도 체육인이 된 자랑을 안고있는 가정이였다. 우리를 제일먼저 맞아준것은 전춘성동무의 딸인 어제날의 휘거선수 리향숙동무였다. 그의 손에 이끌려 방에 들어서니 마침 일터에서 돌아온 온 가족이 텔레비죤앞에 모여앉아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련속패승하고 돌아온 우리 선수들에 대한 도착소식에 심취되여있었다.

《정말 긍지가 큽니다. 우리 선군조선의 체육인들처럼 행복하고 긍지높은 체육인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향숙동무가 텔레비죤화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하는 말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신 축구선수였던 아버지 리영필동무와 기관차체육단에서 정구선수로 생활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배려를 가슴가득 받아안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깊은 추억속에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눈가에는 많은 메달들과 우승컵이 무심히 안겨오지 않았다. 체육인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있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서나 체육인의 존엄과 긍지가 빛나는것은 결코 아니다. 해방전 나라없던 그 세월 국제경기에서 우승하고도 떳떳이 머리들고 승리를 경축할수 없었던 우리 체육인들, 피땀으로 얼어놓은 승리의 주로우에 망국노의 눈물을 쏟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의 체육인들이 아니였던가.

그래서인지 력사적인 8.15전야에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이룩한 경기성과를 대하는 체육인가정의 류다른 감정이 우리의 가슴을 더욱 후덥게 적셔주었다. 텔레비죤화면을 통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아안은 녀자축구선수들의 격정에 넘친 모습을 바라보는 리향숙동무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번뜩이고있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외운 말이 있었다고, 그것은 바로 체육인의 존엄은 금메달이기 전에 귀중한 조국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우리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시라는 절절한 토로였다고 하면서 우리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하고 공화국기발을 높이 휘날릴 때마다 그 말이 귀전을 울린다고 뜨겁게 말하는것이였다.

《금메달로 귀중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부모들처럼 우리 자식들도 람홍색공화국기발을 만방에 휘날리는 체육영웅들로 키우겠습니다.》

리향숙동무의 말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에 사격선수가 된 딸을 우리앞에 내세웠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훌륭한 체육선수가 되겠습니다.》

비록 첫걸음을 내짚은데 불과한 새 세대 체육인의 포부였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귀중하게 안겨왔다. 체육인의 기질을 물려받기 전에 조국의 귀중함을 먼저 새겨안는 우리 체육인들, 그처럼 훌륭한 애국의 토양에서 나서자라 재능을 꽃피우는 우리 체육인들이기에 달려도 세계의 앞장에서 달리고 이겨도 통쾌하게 이겨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는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했다.

깊어지는 생각을 안고 체육인가정을 나선 우리의 머리우에 별이 총총한 8월의 밤하늘이 펼쳐져있었다.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안겨주신 우리 수령님 이야기로 잠 못 드는 8월의 이 밤, 그처럼 귀중한 조국을 만방에 빛내여갈 후손들의 애국의 맹세와 포부로 충만된 밤이였다.

본사기자 지혁철

수필 종소리

종소리! 종소리!

인민대학습당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나의 가슴을 두드린다.

매일 들어온 종소리이건만 조국해방 일흔돐을 눈앞에 둔 요즘 그 종소리는 류다른 격정과 추억을 안고 때없이 가슴을 울린다.

지식으로 내 나라의 번영에 이바지하라고 애국으로 불타는 이 나라 공민들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는것만 같은 저 종소리,

그 종소리를 듣느라니 해방조선의 첫 기슭에 울려퍼지던 삼흥의 종소리가 나의 귀전에 들려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깊은 지식과 고상한 도덕, 건장한 체력, 다시말하여 지덕체를 겸비하여야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자라날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이 흥하게 됩니다.》

얼마전 삼흥중학교를 찾은 우리의 눈앞에 물라보게 변모된 교정의 모습이 깊은 의미를 안고 어려왔다.

훌륭히 개건된 학교의 어디를 둘러보나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가려는 만경대구역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마음이 비껴있었다. 해방된 조국땅에 인민의 아들딸들의 첫 배움터로 일떠선 학교, 백두산3대장군의 거룩한 발자취와 함께 70년의 자랑찬 력사를 수놓아온 영광의 교정을 빛내여가고있는 이 학교 교육자들의 가슴에 그 얼마나 크나큰 긍지가 차넘치고있는것인가.

어버이수령님의 뜻대로 지덕체를 교육교양사업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는 학교 교육자들의 열의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함께 더욱 앙양되고있다고 하면서 교장 리경순동무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그날의 삼흥의 종소리는 오늘날 우리모두를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로 더욱 힘있게 고무하고있습니다.》

비록 수십년세월이 흘렀어도 그날의 종소리는 크나큰 진폭으로 오늘도 시대를 울리고있다는 격정이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높뛰게 하였다.

그렇다.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간직하신 고귀한 후대관이 빛발치는 이 종소리가 안고있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 몸소 학교터전도 잡아주시고 학교이름도 지어주시며 이 나라 인민에게 광명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오늘도 천만의 심장에 후덥게 새겨주는 삼흥의 종소리이다.

해방된 새 조선에서 주체교육의 첫출발을 알리며 울려퍼진 삼흥의 종소리, 그것은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일떠세우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전하는 장엄한 메아리였다.

삼흥의 종소리로부터 시작된 새 조선의 문명의 새 력사는 오늘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짚고있다.

어제날 해방의 만세소리와 함께 울렸던 삼흥의 종소리는 일제에게 우리 말과 글 지어성과 이름까지 빼앗겼던 우리 인민,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문명에로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 력사의 종소리였다.

이 나라의 문명의 새 력사를 소리쳐부르던 삼흥의 종소리는 오늘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로 우리 인민을 힘있게 추동하는 장엄한 진군가로 높이 울리고있다.

무지와 몽매로 어둡던 이 땅에 광명의 새벽을 불러온 삼흥의 종소리, 정녕 그것은 부강하고 번영할 강성조선의 래일을 알리는 위대한 선언이였다.

민족의 은인의 그 숭고한 뜻과 념원을 전하며 삼흥의 종소리는 력사적인 조국해방 70돐을 맞고있는 이 뜻깊은 8월에 더욱더 크나큰 메아리로 온 나라 강산에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공로혁

두 권의 시집을 보며

시를 가리켜 넋의 분출이고 시대의 숨결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시를 통하여 당대 사회의 지향과 맥박을 느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해방은 우리 인민들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는 광활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앞에 두권의 시집이 있다. 해방전에 창작된 시작품들이 실린 시집과 해방후 창작된 시들을 묶은 시집이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진달래》, 《탄식하는 사람들》…

해방전에 창작된 시작품들을 새겨볼수록 나라를 빼앗겨 고통과 울분에 시달리던 우리 인민의 비애의 감정이 짙게 어려온다.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였다는 울분의 토로, 모진 비바람만나 흩어지는 가엾는 꽃을 노래하느니 차라리 불들고 울것이라는 비애의 감정…

그것은 시라기보다 빼앗긴 조국을 두고 가슴아파하는 망국민의 울분의 감정이였고 수난자의 설음이였다.

언제부터였던가. 눈물과 설음만을 하소연하던 우리 시인들의 붓대가 새 생활의 환희와 숨결을 벅차게 노래하기 시작한것은.

주체34(1945)년 8월 15일, 이날부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되는 인민의 새 나라를 일떠세워주신 력사의 사변,

이 땅의 시인들은 드디여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새 생활을 반영한 시와 노래들을 련이어 내놓기 시작하였다.

해방후 창작된 시작품들이 우리 가슴을 울린다. 얼마나 많은 시와 노래들이 태여났던가.

그중에서도 민족의 은인이시며 새 조선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하고싶어하는 우리 시인들의 흥분과 격정은 남달랐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일성장군찬가》, 《백두산》…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이라는 격찬의 시구절을,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이라는 칭송의 노래를 어찌 몇몇 시인의 심장에서만 뿜어져나온것이라고 하랴.

그것은 조국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전인민적사상감정의 폭발이였고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김일성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려는 인민의 의지의 메아리였다.

우리 시인들은 새 조국의 품에서 누리는 인민의 격동적인 생활, 그들의 운명에서 일어난 극적인 변화들을 끝없이 자기의 시와 노래에 담았다.

《농촌위원회의 밤》, 《밭갈이 노래》, 《승리의 5월》, 《녀성의 노래》…

그것은 비단 원고지우의 글줄이나 오선지우의 악보만이 아니였다. 들끓는 생활의 숨결이였고 시대를 벅차게 호흡하는 우리 시인들의 높뛰는 심장의 박동이였다.

인간의 감정의 가장 격렬한 분출인 시는 력사의 생동한 자취이며 거울이라고 말할수 있다. 해방전 설음과 울분의 노래를 짓던 사람들로부터 행복의 노래, 창조와 번영의 노래를 마음껏 구가하는 력사의 기록자들로!

그처럼 극적인 운명의 주인공들이 된 우리 시인들이 격정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창작한 새 조선의 시작품들은 오늘도 우리 조국과 인민이 걸어온 감명깊은 력사의 메아리가 되여 천만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본사기자 백성근

항일선렬들이 지니였던 숭고한 정신세계를 체현한 선군청년전위로 억세게 준비해갈 결의에 넘쳐있다. —평양미술대학에서— 본사기자 찍음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1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으로 민족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박봉주총리 큰물피해실태 현지료해

【평양 8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박봉주내각총리는 황해남도의 큰물피해실태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황해남도에서는 지난 8월초 폭우와 해일로 해안방조제가 부분적으로 파괴되고 살림집들과 도로, 철도, 다리 등이 침수되거나 못쓰게 되였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농경지들이 침수, 류실되여 알곡수확을 거의나 기대할수 없게 되였다.

총리는 해주시와 벽성군, 신원군의 여러 피해대상들을 돌아보면서 피해정형을 알아보았다.

박봉주총리 큰물피해실태 현지료해

현지에서 소집된 협의회에서는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키는데 선차적힘을 넣으면서 피해복구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이에 앞서 총리는 강원도 원산시와 문천시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관광도시의 체모에 어울리게 도로개건과 철도건설을 다그치고 원산육아원, 애육원운영을 잘하며 새로 만든 농기계의 성능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녀자축구선수들을 환영하는 연회진행

온 나라가 선군조선의 장한 딸, 빨찌산녀전사들이 창조한 또 하나의 경이적인 체육신화로 들끓고있는 가운데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녀자축구선수들을 환영하는 연회가 11일 옥류관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장은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친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의 련전패승을 그토록 값높이 빛내여주시며 그들을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한 녀자축구선수들과 가족들, 감독들, 일군들이 연회에 초대되였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과 축구후원단체 책임일군들, 나라의 축구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불굴의 정신력과 빨찌산공격전법으로 싸워 우리 녀자축구는 반드시 우승할것이라고 굳게 믿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고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한 녀자축구선수들과 감독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는 우리의 미더운 녀자축구선수들이 이룩한 자랑찬 승리는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애국충정의 선물이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오늘의 승리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 하루빨리 체육강국을 일떠세울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지니시고 나라의 축구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은정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녀자축구선수들이 이룩한 경기성과를 보고받으시고 온 나라가 동무들을 기다리고있다고, 건강한 몸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사랑의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오시여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으며 수십리연도에 환영의 꽃바다를 펼쳐주시고 오늘은 이처럼 성대한 환영연회도 차려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정에는 앞으로도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람홍색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백승만을 떨치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녀자축구선수들이 될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어려있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선수, 감독들이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을 심장속에 새겨안고 달려도 세계의 맨 앞장에서 달리고 이겨도 통쾌하게 이기며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김광민책임감독이 답사를 하였다.

그는 팀의 모든 선수들과 감독들 그리고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 체육인들의 열화와 같은 충정과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또다시 선군조선의 영웅적기상을 자랑스럽게 떨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에게 백두의 혁명정신과 필승의 신념,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새 힘을 안겨주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위대한 사랑의 결실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심장에 새겨안고 모든 선수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육체기술적강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기상을 더 높이 떨쳐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녀자축구선수들을 축하하는 평양시내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출연자들은 공연에서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체육신화를 창조하며 선군조선의 기상과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함으로써 당과 조국, 인민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한 녀자축구선수들을 축하하였다.

연회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 억척같이 다진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선군조선의 승리의 개가를 더 높이 울려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가 차넘치는 속에 진행되였다.

꾸바대사관 성원들 조국해방전쟁사적지 참관

꾸바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 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1일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독창적인 전략전술, 탁월한 령군술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최고사령부지휘처와 혁명사적비, 작전실 등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또한 전화의 나날 최고사령부작전대결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과 령활한 전법을 배우시며 백두령장의 슬기와 무비의 담력을 키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어려있는 여러 사적물들을 참관하였다.

특명전권대사는 감상록에 이곳을 참관하고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승리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를 반대하는 전쟁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였다, 새 세대들에게 위대한 혁명정신을 넘겨주기 위하여 이곳이 훌륭히 보존되고있는데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글을 남기였다.

【조선중앙통신】

원군의 길에 충정도 애국도 우리의 미래도 있다

평양시인민위원회 사회급양관리국 칠골식당 김특실로인

만경대구역에는 원군할머니로 불리우는 한 로인이 있다. 원군어머니로 불리우던 때로부터 80나이를 바라보는 오늘까지 자손들과 함께 24년동안 원군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는 그는 병사들과 구역일군들과 인민들속에 원군미풍선구자로 알려져 존경받는 평양시인민위원회 사회급양관리국 칠골식당 김특실로인이다.

원군의 길에 시작은 있어도 종착점은 없다. 대를 이어 가야할 충정과 애국의 길이 바로 원군길이다는것이 원군할머니의 고결한 인생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은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우고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며 일단 유사시에는 군대와 한전호에서 생사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주체83(1994)년 1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류다리(2단계)와 금릉2동굴을 건설할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신 소식에 접한 김특실녀성은 종일 장군님의 명령이 실린 신문에서 눈길을 떨줄 몰랐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여 피눈물이 흐르는 때에 이런 명령을 내리시다니. 읽을수록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어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그날 자식들을 불러앉힌 김특실녀성은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우리 가정이 떨쳐나서 인민군대를 있는 힘을 다해 돕자꾸나. 그렇게 하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격정에 젖어있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자식들은 잘 알았다.

전쟁의 마지막해에 15살 어린 몸으로 떼를 쓰다싶이 하여 군복을 입은 그때부터 수십년동안 당과 조국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열정넘쳐 일해온 김특실녀성이였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던 당부를 지켜 인민군대원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왔다.

1987년, 당과 조국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희생된 남편의 공로를 잊지 않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준 그날 시어머니는 자기와 아들에게 수여된 렬사증을 매만지며 이 은혜를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잊지 말고 보답하자고 절절히 이야기하였다.

《나라를 지키는 인민군대를 위하는것은 받아안은 은덕에 보답하는 길임을 언제든지 잊지 말아라.》

그날부터 아들,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과 함께 년로한 몸으로 여러가지 좋은 일을 하여온 시어머니는 눈을 감는 순간에도 인민군대를 힘자라는것 원호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었다.

원군은 우리 가정의 가풍이고 보답의 길이다.

김특실녀성은 시어머니의 당부대로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91년 12월과 이듬해 조선인민군창건 60돐을 비롯한 여러 계기마다 사회주의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을 온갖 지성을 다해 원호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슴뜨거운 명령에 접한 그때에도 그의 집에서는 매일 밤깊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남편과 세 아들이 마름질을 하면 김특실녀성과 두 딸이 원호물자들을 한점두점 완성해갔다. 그러느라 새벽을 맞기가 일쑤였다.

어느날 자정이 넘도록 원호물자들을 마련하고 자리에 누웠던 김특실녀성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다시 일손을 잡은지 얼마 안있어 촉기빠른 맏딸 조명희동무가 살며시 일어나 어머니에게서 일감을 앗아들었다. 그러다 어머니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는가고 하는 그에게 김특실녀성은 생각깊은 어조로 말하였다.

《그처럼 큰 상실의 아픔을 안으시고도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인민군대를 불러주신 장군님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는구나.》

한점의 원호물자를 마련하면서도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공민된 도리와 의무를 다하고저 자신을 다잡군 하였다.

며칠사이에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금릉2동굴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에게 안겨준 그때부터 김특실녀성은 원군의 길을 더욱 힘차게 이어갔다. 이듬해 정초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박솔초소를 찾으신 소식에 접하자 김특실녀성은 자식들과 함께 또다시 가정에서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들을 영광의 초소 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한해가 지나고 두해, 세해 세월이 흐를수록 위대한 장군님의 병사들을 위하는 김특실녀성의 마음은 더더욱 극진하고 강렬해졌다.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변함없이 원군길을 이어가던 어느해 겨울 김특실녀성은 막내딸 조보람동무와 함께 원호물자들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먼길을 떠났다. 례년에 없는 폭설이 쏟아져내리던 그날 눈구뎅이에 빠지기도 하고 돌부리에 채워 넘어지면서도 걸음을 다그치던 그들앞에 작지 않은 하나의 하천이 막아나섰다. 눈이 두텁게 쌓여 깊이도 얼음두께도 가늠할수 없는 하천을 일별하고난 김특실녀성은 주저없이 걸음을 내짚었다.

혹 얼음이 꺼지기라도 하면 어쩌는가고 급히 만류하는 딸의 손목을 잡으며 김특실녀성은 나직이 말했다.

《우린 기여서라도 기어이 건너야 해. 주춤하면 원군길이 늦어진다.》

자기를 이끄는 어머니를 따라 걷는 조보람동무의 가슴은 뭉클해왔다. 어머니가 걷는 원군길은 누가 불러서 또 떠밀어서 가는 길이 아니였다.

원군을 삶의 요구로, 어길수 없는 의무로 여기는 김특실녀성이였다. 자기는 비록 고생을 하고 부족한것, 어려운것이 많다해도 병사들이 아무런 불편과 근심걱정없이 군무생활과 전투임무수행을 잘할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그였기에 원군의 길에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여주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원호물자를 준비할 때마다 말없이 큰 몫을 맡아주던 맏딸이 손을 크게 상하였을 때에도 병사들을 위한 원군의 길을 멈추지 않았다. 몇알 안되는 강냉이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에 떨쳐나선 병사들에게 보내줄 원호물자들을 준비하기 위해 수백리 먼길도 시름없이 다녀왔고 그 길에서 이날처럼 차디찬 눈비와 세찬 바람을 달게 맞군 했다.

그날 원호물자를 가득 싣고오는 화물자동차에서 김특실녀성의 손을 꼭 잡은 조보람동무는 우리 어머닌 어찌면 이리도 강인할가 하고 속삭였다.

이러는 딸을 꼭 껴안으며 김특실녀성은 말했다.

《원군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가부다. 량심과 의리가 없이는 걸을수 없는 원군길이 아니냐.》

원군에 충정도 있고 애국도 있으며 가정과 자손들의 행복한 미래도 있다는 이런 신념을 안고 김특실녀성은 해마다 건군절과 선군절을 비롯한 뜻깊은 명절들과 기념일들은 물론 여러 계기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이 어려있는 다박솔초소와 녀성해안포중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오성산초소를 비롯한 수많은 인민군부대 군인들에게 자손들과 함께 마련한 갖가지 지성어린 원호물자들을 보내주면서 총대로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줄것을 절절히 당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정서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수지구에 희한한 물놀이장을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인민군군인들을 불러주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그때에도 김특실로인은 그날로 가족비상소집구령을 내렸다.

아들딸들을 비롯한 자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관철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을 힘껏 돕자고 이야기했다.

어느새 작성했는지 가지가지 원호물자품목들을 내리꼽는 그를 보는 자식들의 가슴은 후더워났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에 접하면 그 내용이 실린 신문을 자자구구 읽고 또 읽으면서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쪼아박듯 새기고 스스로 자기 할바를 찾아 인민군대원호를 통이 크게 진행하여온 김특실로인이였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신병으로 자리에 누웠다가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군군부대 현지시찰소식이 전해지면 자리를 차고 일어나 밤낮을 잊고 끼니도 번져가며 원호물자들을 마련하군 했다.

원군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떨래야 떨수 없는 생활이였고 락이였다.

그에게는 원군이 어느덧 인생관으로 굳어진것이였다.

문수물놀이장이 건설된다는 소식에 접한지 며칠 안되여 김특실로인은 자손들과 함께 마련한 수많은 지성어린 원호물자들을 가지고 군인건설자들을 찾아갔다.

《원군할머니, 고맙습니다.》, 《원군할머니의 당부대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결사관철하겠습니다.》

하나와 같이 씩씩하고 담찬 병사들의 목소리를 듣는 김특실로인의 생각은 절로 깊어졌다.

원군할머니, 금릉2동굴건설장과 다박솔초소를 비롯한 조국방선과 사회주의건설장의 인민군군인들속에서 원군어머니로 불리웠던 그가 이제는 원군할머니로 정답게 불리우는것이였다. 원군의 길에 나서던 때로부터 어언 20년이 퍽 넘는 세월이 흘렀던것이다. 원군어머니로부터 원군할머니로 불리우는 오늘까지 병사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갈 한마음안고 세대와 년대를 이어 원군길을 걷고 또 걷는 김특실로인, 그가 걷는 원군길은 신념의 길, 보답의 길, 영광의 길이였다. 원군의 그 길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을 수여받고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닌 김특실로인은 여러차례에 걸쳐 위대한 장군님의 분에 넘치는 감사를 받아안았다. 그리고 전국원군미풍열성자대회를 비롯한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고 진행된 대회들에 참가하여 대를 두고 길이 전할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는 행복과 영광을 지니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얼마전 김특실로인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온 나라가 알도록 내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과 믿음을 받아안은 김특실로인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자손들을 이끌고 충정과 애국의 원군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리라 굳게 다짐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치곤

김특실로인 (오른쪽에서 세번째)

붉은기이어달리기에 참가하고있는 조선인민군 군인들

신천박물관 참관, 복수결의모임 진행

붉은기를 대오앞에 휘날리며 서해지구를 달리고있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목적지를 향하여 행군속도를 높이고있다.

행군기간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선군령도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비롯한 여러 부대들에서 위대성교양모임과 신념교양모임, 체육경기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사업들을 진행하였다.

11일 붉은기이어달리기에 참가하고있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신천박물관을 참관하였다.

참관자들은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철의 신념과 의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신천박물관이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선데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원쑤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슴 불태우며 박물관을 돌아보았다.

이어 그들은 복수결의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는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 군인들이 참가하였다.

신천박물관 명예관장 주상원은 신천땅에 기여든 미제침략자들이 계급적원쑤들과 함께 피묻은 군화발이 닿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범로동자라고 하여 아버지를 달구지에 묶어 사지를 찢어죽이고 400명의 어머니들과 102명의 어린이들을 무참히 살해한 원쑤들의 낯짝을 가슴속에 새겨두고 수십년세월 계급투쟁의 초소를 지켜가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새 세대 군인들에게 천백배의 복수를 당부하였다.

조선인민군 군관 김정수, 사관 최금석은 신천박물관건축공사의 나날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야말로 인간살륙을 도락으로 삼는 식인종무리이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으며 계급의 칼날을 더욱더 서슬푸르게 벼리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최근 신천땅에서 새로 발굴된 유해들과 유물들, 시한폭탄들은 군인들에게 신천땅의 피의 교훈, 계급투쟁의 진리를 다시금 똑똑히 깨우쳐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사관 리혁철은 웅변 《석당교의 웨침》에서 애국자들의 피가 스민 석당교는 조국의 병사들에게 피의 결산을 당부하고있다고 하면서 총대에 복수의 칼날을 억세게 꽂고 원쑤격멸의 그날 석당교에 서린 원한을 천백배로 풀어주자고 말하였다.

웅변 《야수》, 시 이야기 《최후복수전이 눈앞에 있다》에서 출연자들은 원쑤들이 살아있는 한 총대의 파녁, 계급투쟁의 파녁은 변할수 없다고 하면서 침략의 원흉이고 흉물인 미제의 력사에 수치스러운 종국적멸망의 페지를 신천의 이름으로 가슴후련히 써줄것이라고 소리높이 웨쳤다.

사관 최철경, 석은관은 총탄 한발한발에 신천의 복수를 재우고 신천의 피값을 재우며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최후결전의 그날 미제침략자들을 백두산총대로 무자비하게 불마당질해버릴 보복의지를 표명하였다.

복수결의모임이 끝난 다음 인민군군인들의 실탄사격이 진행되였다.

우리 인민의 피의 원한을 반드시 풀고야말 철석의 의지로 심장을 끓이며 멸적의 총성을 높이 울린 인민군군인들은 관문점을 향하여 행군을 다그쳤다.

조국해방 70돐경축

조로우표수집전시회 개막

조국해방 70돐경축 조로우표수집전시회가 조선우표애호가동맹과 로씨야민족우표수집아까데미야의 공동주최로 평양에서 개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우표를 반영한 사진문헌이 전시회장에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조국해방업적,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 로씨야의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조로친선관계 등을 주제로 한 우표들을 비롯하여 조로 두 나라 우표수집가들이 수집한 우표들이 전시되였다.

개막식이 11일 조선우표전시장에서 진행되였다.

개막식에는 김영길 조선우표애호가동맹 위원장,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과 우표수집가들이 참가하였다.

알렉싼드르 미나예브 주조로씨야련방 림시대리대사, 대사관 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로씨야손님들과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두 나라 령도자들께서 마련해주신 조로친선이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다고 하면서 최근 두 나라 우표발행기관들과 우표수집단체들사이의 다방면적인 협조와 교류가 활발해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조국해방 70돐에 즈음하여 개막된 이번 전시회가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협조, 문화적교류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된 우표들을 돌아보았다.

2015년 아시아컵공개빙상휘거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우리 선수들 귀국

2015년 아시아컵공개빙상휘거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우리 선수들이 11일 귀국하였다.

지난 5일부터 타이에서 진행된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을 비롯한 14개 나라와 지역의 우수한 남, 녀선수 12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3개의 금메달과 각각 2개의 은메달, 동메달을 쟁취하였다.

홍일선수는 청소년 2급 남자개인경기에서, 최향림선수는 청소년 2급 녀자개인경기에서, 김권평선수는 청소년 3급 남자개인경기에서 금메달들을 쟁취하였다.

한편 로영명, 김권용선수들이 청소년 1급, 청소년 3급 남자개인경기에서 각각 2등을, 한금철, 리주원선수들이 청년급, 청소년 3급 남자개인경기에서 각각 3등을 하였다.

평양역에서 체육인들이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온 선수,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조국해방 70돐기념 재일본조선인대표단 도착

박구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국해방 70돐기념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몽골을 방문하였던 조선몽골친선의원단대표단 귀국

몽골을 방문하였던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인 태형철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몽골친선의원단대표단이 11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몽골 림시대리대사가 마중하였다.

레바논민주청년동맹대표단 도착

하싼 제이토우니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레바논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11일 렬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국해방 일흔돐경축 전국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의 독창, 독주경연 입선자들의

전국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의 독창, 독주경연 입선자들의 종합공연 진행

조국해방 일흔돐경축 전국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의 독창, 독주경연 입선자들의 종합공연이 11일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농근맹 일군들, 농업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합창 《김일성대원수 만만세》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녀성독창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 남성독창 《붉은 철령》, 이야기와 노래 《불타는 소원》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항일의 혈전만리, 불바다만리를 헤치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녀성독창 《포전길 걸을 때면》, 《아름다운 고향》 등의 종목들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포전길을 걷고 걸으시며 이 땅우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을 펼쳐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쌀로써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만방에 빛내여가려는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신념과 애국의 마음이 혼성5중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남성독창 《선군의 나의 조국아》의 종목들에서 힘차게 분출되였다.

시와 합창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로 끝난 공연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 길이 빛내이며 당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받들어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농업근로자들의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해외동포대표단들 도착

조국해방 70돐기념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할 리동제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인대표단, 김칠성 제1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 김수해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 림민식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국통일범민족련합공동사무국대표단, 손형근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대표단이 1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한봉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해방 70돐경축 국제련대성행사에 참가할 대표단, 대표들 도착

조선해방 70돐경축 국제련대성행사에 참가할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대표단,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베한드로 까오데 베노스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과의 친선협회대표단과 헬미엘 하디디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위원장, 코지마 웨버류 환경교육보급계획 집행국장이 1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재일본조선인대표단

조국통일범민족련합공동사무국대표단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대표단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대표단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위원장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대표단

환경교육보급계획 집행국장

주체로 잇는 일조우호학습대표단 귀국

이에 마사지 일본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련락회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주체로 잇는 일조우호학습대표단이 11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김세정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11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방어》의 간판을 단 북침핵공격연습

조선반도정세가 또다시 최악의 긴장상태에로 치닫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괴뢰국방부는 17일부터 미국과 함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시작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이것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로서 가뜩이나 불안정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발발국면에로 몰아가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상투적수법대로 그 무슨 《방어적성격의 훈련》이라고 우겨대고있다. 얼마전 미국은 남조선과의 합동군사연습이 《투명하고 방어적》일뿐아니라 《정례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되여왔다고 떠들어댔다. 괴뢰군부깡들도 《년례적인 방어훈련》을 운운하며 합동군사연습은 그 누구의 《침공에 대비》한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아댔다. 그야말로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 아닐수 없다. 내외호전광들이 아직도 저들의 북침전쟁연습을 정당화해보려고 오그랑수를 쓰고있는것은 조소를 자아낼뿐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서툰 말장난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그 케케묵은 《방어》타령은 듣기에도 지겹다. 미국과 괴뢰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가리울수 없다.

남조선괴뢰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벌려놓는 합동군사연습은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전쟁도발책동이다.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이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사와 공격기도의 발로라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상대방을 침공대상으로 여기지 않으며 공격할 기도가 없다면 굳이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무력과 선제타격수단들을 투입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장난소동을 벌릴 하등의 리유가 없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해마다 남조선에서 벌리는 여러가지 합동군사연습들은 그 규모와 기간이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가장 긴 연습들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남침》을 막기 위해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다는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미국과 괴뢰들이 합동군사연습에 《방어적》성격을 부여하며 정당화하는것은 공정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이며 우롱이다.

력대적으로 미국은 《북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간판밑에 저들이 감행하는 전쟁연습을 합리화해왔다. 지난 조선전쟁도 《북의 남침》에 의해 일어났다고 터무니없는 날조설을 내돌렸으며 지난 수십년간 《북의 위협》을 운운하며 내외여론을 오도하였다. 하지만 력사와 현실은 《북의 위협》이란 있어본적이 없으며 그것은 도발자들이 저들의 침략적기도를 가리우기 위해 꾸며낸 파렴치한 모략설이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오히려 남조선에서 미국과 괴뢰들의 합동군사연습이 감행될 때마다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군 하였다. 내외호전광들이 합동군사연습을 년례행사처럼 벌려놓고있는것은 우리 공화국에 항시적인 군사적위협을 가하다가 불의에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범죄적흉계의 뚜렷한 발로이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전형적인 공격연습, 북침핵시험전쟁이다.

이 전쟁연습의 기본목적은 북침선제공격각본에 따른 미제침략군과 괴뢰군부대들의 작전수행절차와 실동능력을 숙달완성하고 괴뢰군과 행정기관, 민간의 전쟁준비상태를 《총체적으로 점검, 개선》하는것이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감행될 때마다 내외호전광들은 악명높은 최신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전개하고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방대한 병력은 물론 괴뢰정부기관들과 수십만에 달하는 민간인들까지 전쟁대비태세에 돌입시킨 상태에서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과 전면전쟁의 성격을 띤 도발적인 훈련들을 미친듯이 벌려놓았다. 그 누구의 《급변사태》시 우리의 중요대상들과 군사시설들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 탐지, 제거》훈련, 《북안정화 및 민정이양작전》훈련 등도 이 전쟁연습의 테두리내에서 감행되군 한다.

더우기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지난해에 있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 당시 사상 처음으로 북침핵선제타격각본인 《맞춤형억제전략》을 적용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그에 대해 얼마전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령관은 《실현가능한 씨나리오에 기반한 연습》을 통해 《필수임무수행을 위한 가치있는 훈련》을 하였다고 실토했다.

올해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서 벌어지는 훈련들 역시 우리의 전략적종심과 중요거점들에 대한 핵선제타격능력을 숙달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지구상 그 어디에도 이처럼 주권국가를 상대로 하여 핵선제타격과 《제도전복》을 로골적으로 꾀하며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벌리는 곳은 없다.

이제 더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며 저들이 벌려놓는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가리워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지만 오늘과 같은 밝은 세상에서 그런 궤변은 통할수 없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대화와 관계개선의 악랄한 방해자가 다름아닌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광란적인 북침핵전쟁책동을 억척같이 다져온 강위력한 군사적억제력으로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려는것은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노력에 호응하여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온갖 적대행위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갈 결단을 내렸다면 대화도 가능해지고 많은 문제가 풀릴수 있었다. 그러나 내외호전광들은 이미 짜놓은 북침전쟁도발각본을 포기하려 하지 않으면서 한사코 대결과 전쟁의 길로 미친듯이 질주하고있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히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고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내외호전광들의 준동이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선 오늘의 사태를 우리가 가만히 앉아보고만 있는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전쟁억제력을 최대로 강화하면서 적대세력의 군사적도발에 단호히 맞받아나가는것은 응당한 자위적권리이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찜질이 제격이듯이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과 그의 사타구니에 붙어 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미쳐날뛰는 얼간망둥이같은 괴뢰패당과는 말로써가 아니라 총대로 결판을 보아야 한다.

우리를 덮끌만큼이라도 건드리려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그 어디에 있든 절대로 무사치 못할것이다.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수치스러운 참패와 종국적파멸뿐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경고를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심 철 영

자멸을 재촉하는 체제대결광대극

최근 그 무슨 《통일준비》를 운운하며 괴뢰패당이 벌리고있는 도발적망동이 날로 더욱 무분별해지고있다. 괴뢰통일부패거리들이 《통일》이후 저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데 대해 미리 대책해야 한다고 하면서 《관련법을 정비》한다, 《인권문제에 대비》한다 하고 분주탕을 피운 극악한 대결광신자들은 없었다. 괴뢰보수패당의 망동은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지향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도전인 동시에 우리에 대한 극악무도한 정치적도발로서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겉으로는 그 무슨 《대화》와 《협력》에 대해 떠벌이면서도 속에는 칼을 품고 체제대결에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괴뢰역적패당의 망동은 우리 인민은 물론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박근혜패당이 지금껏 무엇을 꿈꾸어왔으며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무엇때문에 그 실현을 각방으로 가로막아왔는가 하는것이 불보듯 명백해졌다. 괴뢰당국의 《대화》타령은 반공화국압살계책을 가리우기 위한 한갖 궤변일뿐이다. 괴뢰들은 더이상 《대화》니 뭐니 하며 여론을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가 지금처럼 수습할수 없는 총체적파국상태에 처하고 핵전쟁발발의 위기가 고조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그 누구의 《면화》와 《체제통일》을 꾀하며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압살소동에 광분해온 괴뢰역적무리에게 있다.

이자들이 아직도 교훈을 찾지 못하고 계속 쏠라닥거리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감히 어째보려고 헤덤비는것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추호도 용서치 않을것이다. 우리는 이미 날로 무분별해지는 남조선괴뢰당국의 체제대결책동에 경종을 울리였다.

괴뢰당국이 《체제통일》을 추구하며 끝끝내 전쟁의 불집을 터치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성스러운 조국통일대전으로 미제와 그 더러운 주구들을 깨끗이 청산해버리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페허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성국가를 일떠세우게 될것이다.

라 설 하

《빨찌산공격전법》으로 위력을 과시한 조선축구

◎ 미국의 인터네트에 실린 글 ◎

【평양 8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미국의 인터네트홈페지 《레디트》가 최근 우리 나라의 축구발전면모를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조선의 축구가 《빨찌산공격전법》으로 더욱 발전하고있는데 대해 서술하였다.

《빨찌산공격전법》은 튼튼한 체력을 토대로 경기 전기간 상대를 압박하며 역습으로 득점하는 공격전법이라고 하면서 글은 이 전법이 2015년 동아시아축구련맹 녀자동아시아컵경기대회에서 그 위력을 과시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가혹한 더위속에서 진행된 경기들에서 조선의 녀자축구선수들은 《빨찌산공격전법》으로 련승하였다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의 축구발전은 김정은령도자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에 의하여 이룩되고있다.

그이의 발기와 지도밑에 최근년간 조선은 평양국제축구학교를 내오고 선수선발과 육성에 큰 힘을 넣고있다.

박근혜는 경망스러운 악담질로 얻을것은 수치뿐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지난 10일 박근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라는데서 우리가 새로운 표준시간을 설정한데 대해 걸고들면서 《시간대마저 분리하려는것은 남북협력과 평화통일노력에 역행하는것》이니, 《분단고착》이니, 《고립의 길》이니 뭐니 하는 고약한 악담질을 하였다.

괴뢰통일부 대변인이라는자도 《일방적인 표준시변경》과 《국제관례》를 떠들어대며 저들의 《대화제의에 호응해 남북교류협력과 표준시간문제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주제넘게 줴쳐댔다.

괴뢰패당이 우리가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표준시간인 평양시간을 새로 제정한것을 시비질하다 못해 박근혜까지 직접 나서서 악담질을 한것은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며 동족대결과 친일매국에 환장한자들의 히스테리적발작증이 이미 도수를 넘어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가 새로운 평양시간을 제정한것은 일제에게 빼앗겼던 우리나라 표준시간을 되찾고 민족사를 바로잡는 지극히 애국애족적인 조치로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전세계의 광범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세기초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비법적이고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전대미문의 극악한 식민지통치와 조선민족말살책동에 광분하면서 1912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의 표준시간을 빼앗고 저들의 도꼬시간을 강요하는 천추에 용서못할 범죄행위를 감행한데 대해서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의 새로운 표준시간제정조치에는 바로 피로 얼룩진 일제의 죄악을 결산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영원토록 세계만방에 떨쳐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온 겨레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더우기 우리의 표준시간제정은 지난 1884년 국제자오선대회에서 시경대가 설정된 후 동경 127°30′을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간을 사용하여온 우리 민족의 력사로 보나 과학적견지에서 볼 때에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조치이다.

때문에 남조선의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우리가 제정한 평양시간이 전통적인 조선반도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지극히 당연한것이라고 찬양하고있는것이다.

오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의 표준시간을 가지고있고 더우기 자기 나라의 표준시간을 정하는 문제는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속한 문제로서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관례이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우리의 표준시간제정문제를 헐뜯는 악담질을 함으로써 가문대대로 친일에 쩌들어있는 역적의 본색을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남조선에서도 한때 조선반도를 기준으로 표준시간을 바꾸었으나 박정희역도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다음 과거 일제가 정한 시간으로 되돌려놓았다.

당시 박정희가 남조선과 일본에 주둔한 미제침략군과 야합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할 목적으로 그런 역적짓을 감행했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최근에는 또 박근혜의 동생년이 《일본에 식민지통치사과를 요구하는것은 내정간섭》이라느니, 《일본정치인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도 문제가 안된다.》느니 뭐니 하는 악담질을 하여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일본사무라이들에게 《충성혈서》를 써바치고 《대동아공영권》실현에 앞장서 날뛰였을뿐아니라 동족대결과 전쟁도발을 위해 백년숙적과도 입을 맞추며 민족의 표준시간까지 헌신짝처럼 차던진 애비나 그를 비호두둔하고 민족반역을 일삼는 딸년들을 보면 하나같이 친일매국노의 피줄을 타고난 천하의 역적무리가 틀림없다.

박근혜는 우리의 표준시간제정조치를 악랄하게 헐뜯음으로써 용서받을수 없는 동족대결의 죄악우에 씻을수 없는 민족반역죄악까지 덧쌓고있다.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오늘까지 남조선에 박근혜와 같은 친미친일역적들이 살판치며 민족의 존엄을 우롱하고있는것은 참을수 없는 민족적수치이며 비극이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침략적인 외세에 아부굴종하며 민족반역행위에만 미쳐돌아가는 박근혜패당은 반드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천추만대를 이어가며 일제의 죄악을 결산하고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빛나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세계만방에 떨치려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박근혜는 경망스러운 악담질로 얻을것은 수치뿐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박근혜는 더러운 잔명을 조금이라도 더 부지하려거든 입질을 함부로 하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주체104(2015)년 8월 11일
평 양

관계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를 비롯한 종교단체들로 이루어진 불교단체 련석회의가 6일 《5.24조치》를 해제하고 북남관계개선에 나설것을 괴뢰당국에 요구하였다.

단체는 《5.24조치》는 남북사이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 현실적이며 제도적인 장애물이라고 단죄하였다.

이 조치로 하여 남북경제협력기업들과 단체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하고있다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이미 그 실효성이 없다는것이 확인된 《5.24조치》를 해제하고 대화와 교류를 재개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북관계개선의 전제인 호상신뢰는 말로써 형성되는것이 아니라 상대를 적대시하지 않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단체는 지적하였다.

대화상대를 자극하고 정세를 긴장하게 만드는 정치군사적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체는 8.15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것은 온 국민의 념원이라고 강조하였다.

단체는 《5.24조치》해제를 비롯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민주와 인권을 짓밟는 살벌한 폭압소동

남조선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얼마전 서울에서 목요집회를 가지고 괴뢰패당의 폭압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민가협량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헌은 현 《정권》하에서 하루가 멀다하게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기소 등 공안탄압이 이어지고있다고 성토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처장 최현무는 공안당국이 《세월》호참사범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 박래군을 구속한것은 일개인에 대한 구속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와 인권을 짓밟는 반민주, 반인권행위라고 지탄하였다.

내란음모사건피해자가족대책위원회 성원 엄경희는 악법 《보안법》이 있기때문에 여전히 전 통합진보당관계자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는 현 《정권》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한 량심수들을 전원 석방할것을 요구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량심수 전원 석방》, 《보안법 폐지》, 《공안탄압 중지》 등을 웨치며 당국의 탄압책동에 맞서 투쟁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괴뢰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군국주의부활에 광분하는 일본을 반대하여 투쟁

남조선 각계가 군국주의부활에 광분하는 일본을 반대하여 투쟁을 벌리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성원들과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은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에서 수요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일본중의원 본회의에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발의된 안전보장관련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전범국 일본이 세계인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재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넓히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을 부추기는 미국을 단죄하였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를 비롯한 120여개 민족단체들과 남조선의 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도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안의 통과를 규탄하였다.

한편 인천지역의 교원, 학생, 학부모 12만여명이 일본의 력사외곡책동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에 참가하였다.

지난 6월부터 서명운동을 벌려온 그들은 일본이 과거전쟁범죄를 정당화하고 군국주의부활을 획책하는 내용의 외곡된 력사교과서를 만들려는데 대해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매국의 뿌리에서 돋아난 희세의 반역아

생화학전도발책동 규탄받는 미국의

7일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미군이 위협천만한 생화학무기인 탄저균을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한 대상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미국방성의 탄저균배송문제정보제공웹싸이트가 밝힌데 의하면 미군으로부터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받은 연구시설이 193개에 달한다.

유타주에 있는 미군의 다그웨이연구소로부터 87개의 연구소들이 직접 활성탄저균을 배송받았으며 이 연구소들에서 살아있는 표본인줄 모르고 탄저균을 배송받은 연구시설은 106개에 이른다.

연구시설들이 세계도처에 분포되여있는것으로 하여 탄저균을 배송받은 대상들이 더욱 증가할것이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방성은 인류의 생존을 심히 위협하는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각지에 배송된데 대한 책임을 오늘까지도 회피하며 철면피하게 놀아대고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야말로 인류의 생명을 우롱하며 야만적인 생화학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특급전범자이며 국제재판정에 올려세워 단호히 심판해야 할 인권유린의 왕초라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 *

남조선의 탄저균국민조사단이 얼마전 괴뢰국방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탄저균사태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미군의 탄저균불법반입사건과 관련한 합동실무단의 조사가 시작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으로 되여야 할 국방부와 남조선주둔 미군이 오히려 조사를 하고있다고 하면서 조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다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미군은 오산미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있고 국방부는 몰랐다는 립장을 취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언론들은 미국이 세계의 미군기지들중에서 남조선주둔 미군기지에 제일먼저 탄저균실험시설들을 갖추어놓았으며 오산미공군기지에 있는 세균부대가 이번에 탄저균표본이 배달된 연구소의 전신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있다고 단체는 까밝혔다.

단체는 국방부 장관이 《생화학전대비》의 명목으로 미군이 실행하고있는 《쥬피터계획》이 필요하다는 립장을 밝혔다고 단죄하였다.

국방부가 탄저균사태와 관련한 모든 자료들을 국민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단체는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단체는 합동실무단이 해명해야 할 10대 의혹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괴뢰국방부 장관에게 들이댔다.

【조선중앙통신】

매국의 뿌리에서 돋아난 희세의 반역아

못난 색시 탈밤에 삿갓쓰고 나선다는 말이 있다.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이 놀아대는 짤이 바로 그 격이다.

얼마전 미국을 행각한 김무성이 무슨 큰일이나 친듯이 기고만장해하며 남조선으로 돌아왔다. 이자가 자기의 행각이 《미국과의 우정》을 확인하고 더욱 굳게 하기 위한것이라고 떠들어댔지만 본심은 드러내지 않았다.

하다면 이자가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는 삼복철에 비지땀을 흘리며 미국으로 헐레벌떡 날아간 기본목적은 무엇이였겠는가. 그것은 미국으로부터 다음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인증받자는것이였다.

《미국의 인정을 받지 않고서는 〈대통령〉선거후보로 될수 없다.》는것이 괴뢰정치인들속에서 공통된 인식으로 되고있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괴뢰들에게 있어서 집권의 기회를 마련해주는것은 물론이고 집권유지의 열쇠를 쥐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상전의 지지와 후원이 없는 그들의 운명이란 끈떨어진 갓신세나 다름없는것이다.

팔죽단지에 생쥐 달랑거리듯이 력대로 남조선의 《대통령》후보라는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미국을 찾아가는것을 판례로 삼아온것은 바로 그때문이다. 현 괴뢰집권자도 지난 2009년 미국을 행각하며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개선은 없다.》는 망발을 줴쳐 상전을 흡족하게 해주고 《대통령》인증도장을 받았다.

오래전부터 《대통령》자리를 넘겨다보며 야심을 품어온 김무성도 례외가 아니다. 남조선언론들도 《새누리당》대표의 미국행각시점과 규모, 일정들을 놓고보면 다음기 《대통령》선거를 위한것이 분명하다고 평하였다.

제 집안에서도 체통에 어울리지 않게 침략군괴수를 등에 업고 히벌죽거리며 사진을 찍는 추태를 부려 만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은 역도가 대양건너 상전의 소굴을 찾아가 어떻게 처신했겠는가 하는것은 물보듯 뻔하다. 오물에서는 구린내가 풍기기마련이라고 김무성이 낯짝을 내미는 미국땅 가는 곳마다에서는 차마 눈뜨고는 볼수 없는 굴욕적인 광경들이 펼쳐졌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땀도 채 들이기 전에 《례의》니 뭐니 하고 《보훈용사촌》이라는 곳부터 찾은 역도는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살인귀들을 그 무슨 《은인》으로 개여올리면서 《감사》를 표시하는 광대극을 벌려놓았다. 그런가하면 한 호텔에서는 먹자판을 벌려놓고 《어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큰절을 하는 오랜 관습》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자기가 끌고간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을 모두 불러내여 여기저기 넙적넙적 엎드려 뭉특한 코가 아예 납작해지도록 절을 해댔다.

이자가 알링톤국립묘지에서 부린 망동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이다. 누구도 발길을 내짚기 저어하는 알링톤국립묘지라는데 기신기신 찾아간 김무성역도는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했다가 뒈진 《살인장군》워커의 묘에 절을 하고는 《절을 100번 해도 부족하다.》고 씨벌여댔다. 나중에는 비석에 묻은 진흙과 새똥따위의 지저분한 오물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미친놈처럼 넉두리질을 하여 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 각계가 《아예 부채춤을 추라.》고 역도를 조롱했겠는가.

제정신을 잃으면 어리석고 망신스러운것을 하기마련이다. 어떻게 하나 상전의 눈에 들어 점수를 따고 《대통령》감투를 써보려는 김무성의 구역질나는 추태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자는 남조선미국《동맹》의 《소중함》을 운운하며 낯간지럽게 놀아대는 한편 진보좌파가 준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이기는것이라느니, 다음기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느니 하며 자기에 대한 지지를 로골적으로 청탁하였다. 그리고 《F—22》스텔스전투기를 얼마든지 사겠다고 휘소리를 치면서 상전의 비위를 맞추려고 모지름을 썼다. 제 버릇개 못 준다고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면서 그의 힘을 빌어 정치적야욕을 실현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는 김무성이 딸리 처신할수 있겠는가.

더우기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역도가 《북이 병진로선을 포기》하도록 《외교안보적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느니, 《무력도발가능성》이니 하는따위의 악담을 줴쳐대면서 우리의 로선과 체제까지 악의에 차서 헐뜯은것이다. 이것은 자기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으면 미국이 바라는대로 매국반역의 길, 동족대결의 길, 북침전쟁의 길로 질주하겠다는 맹약이나 다름없었다.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는자가 이처럼 꼬물만 한 자존심도 없이 미국상전들앞에서 비굴하게 놀아대며 민족을 망신시키는 추태만 부리였으니 남조선정치가 어찌 사대매국과 반역으로 쩌들지 않을수 있는가.

김무성역도로 말하면 친일파가정에서 돋아난 독버섯이다. 이자의 애비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극구 찬양하면서 침략자들을 적극 협조해온 특등친일분자이다. 조선과 일본은 《한민족, 한뿌리》라고 설교하면서 조선의 젊은이들은 《태평양전쟁에 용감하게 나서서 일본왕을 위해 벗꽃같이 지라.》고 고아댄 가증스러운 역적이 바로 김무성의 애비라고 한다.

매국의 피는 속일수 없는것이다. 이런 더러운 친일매국의 혈통을 이은 김무성이 미국에 가서 정치추물노릇밖에 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뻔한 리치이다.

사대와 굴종, 동족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극단적인 적대의식이 체질화된 김무성이야말로 희세의 반역아가 분명하다.

김무성역도가 이번에 친미사대매국행각으로 상전의 인정은 받았을수 있지만 대신 민심은 깨깨 잃어버렸다.

남조선인민들은 김무성역도의 미국행각을 지켜보며 현 괴뢰집권세력이야말로 미국에 아부굴종하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깡그리 팔아먹고 그 대가로 권력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미쳐날뛰는 추악한 반역의 무리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달았다.

본사기자

ㄱ-51125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